

韓國과 日本人의 食行動에 關한 調查研究(第2報)
— 食事擔當參與와 食事禮法에 關하여 —

金天浩*·芳賀文子**

*漢陽女子專門大學, **日本郡山女子大學
(1989년 6월 5일)

An Investigation of Dietary Behaviors in
Japan and Korea (Part II)
— On Participation in Cooking and Table Manners —

Cheon-Ho Kim* and Fumiko Haga**

*Hangyang Women's Junior College **Koriyama Women's College
(Received June 5, 1989)

Abstract

Of 1,244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f boys and girls and their families in Tokyo and Seoul, we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participation in cooking and table manners.

In both countries, the average age of parents was 40's, and the ratio of the kinds of fathers' job was similar including 75% of full-time salaried workers, while that of mothers' in Japan was 63%, in Korea 23%.

The male participation in cooking in both countries was found in younger generations and that of fathers and boys in Korea was significantly fewer than in Japan, which is regarded as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employment of housekeepers.

The figure of frequency of supper taken together daily was 27% in Japan and 54% in Korea where they didn't begin eating until all families gathered or the elders began.

In Japan the civilities before and after meals were so often customarily expressed and they had the regular order of seats.

The figure of frequency of taking meals with TV watching was about 45% in Japan of breakfast and supper and more than 30% in Korea of supper.

As for the participation in cooking and table manners, national characteristics were clearly found out. In both countries, the newly modernized and democratized style of dietary behaviors was being made, rather sooner in Japan, out of the specific East-Asian traditional dining culture.

I. 緒 論

前報¹⁾에서는 食器具類의 使用에 關해서 韓國과 日本 兩國間의 차이를 比較 檢討하므로써 韓國의 食文化가 日本에 미친 영향을 現代의 食卓에서 考察했으나 本報

에서는 家族의 食事擔當狀況과 食事禮法의 現況은 調查 하므로써 封建社會에서 近代社會까지의 推移 中에서 그 思想的 背景과 함께 食行動의 實態를 調查하고자 했다. 東洋諸國의 食文化의 背景에는 佛敎, 儒敎, 道敎 등 의 共通된 宗敎와 哲學이 있어서 특히 隣接國인 한국과

일본은 유교사상을 기반으로한 共通된 點이 食文化上에서도 많이 엮힌다.

最初로 日本에 유교가 전래된 것은 應神天皇代(3세기 경)에 백제로부터 전해졌다고 하나²⁾ 유교 중에서도 일본 고유의 道德에 부합되는 부분을 흡수하여 「최상의 堅實한 實學」³⁾으로서 武士社會에서 一般庶民에 이르기 까지 침투하여 하나의 生活規範으로 근래에 까지 이어 온 것이다. 그러나 第2次大戰 以後 家族制度의 變化와 核家族化에 따라 유교사상은 차츰 사라지고 가정 생활 속에서도 男女의 역할이 男女平等사상 등으로 流動적으로 되어 食事社會도 형식보다는 자유스런 方向으로 변해왔다.

한국에 있어서는 14世紀末인 李朝시대부터 유교사상 중심으로 父母나 先祖 그리고 高齡者를 존중하는 사상이 그 根幹을 이루었고⁴⁾ 현재도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美德으로 알려지고 있다.

佛敎나 儒敎가 韓半島를 經由해서 日本에 傳來되었으나 일본에서는 神佛승상에 유교사상이 加味된 일본獨自의 食文化가 形成되었고 한국은 崇儒排佛의 食文化로서 이들간에 共通點과 相異點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본다. 근래에 이르러 兩國은 社會적으로 民主化 발전과 동시에 從來의 食文化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점에서 近代化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수도 권을 對象地로 하여 가족의 식사담당의 參與狀況과 식사예법의 實態를 調査하므로써 앞으로의 食文化上的의 展望을 展開 및 考察하고자 했다.

II. 調査方法

調査對象은 I 報에서와 같이 서울市와 東京都内の 國立中學校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이며 한국남자학생 328명, 여자 268명, 합계 596명, 일본남자학생 347명, 여자 301명, 합계 648명이다.

調査期間은 1987년 10월에서 11월까지이고 조사에서는 한글과 일본어로 同一한 質問에 의한 設問紙를 사용했다. 集計는 日本 東北經營計算센터(株)에 의뢰하여 행했다.

III. 結果 및 考察

1. 家族의 年齡

조사대상자인 本人, 祖父母, 父母의 平均 연령은 兩國別로 表 1과 같다. 本人의 연령은 한국의 14.5歲, 일본은 13.8歲로 한국이 0.7歲 높았다. 祖父母는 양국이 모두 70歲代로 조부모보다 조부쪽의 연령이 많았고 그 차이는 일본이 더 컸다.

父母의 연령은 各各 한·일간에 近似했다. 조부와 부의 연령차는 한국이 25.8歲, 일본이 30.4歲로 약 5歲의 차이를 보였다.

2. 父母의 職業

父와 母의 職業을 種類別로 보면 表 2와 같다. 父의 職業別 比率을 보면 양국간에 극히 유사하며 기타 직업으로는 양국간에 工場自營業이 많고 일본에서는 목수 등의 土建業者도 少數人이 있었다.

母의 직업으로는 한국의 有職者가 26.3%, 일본은 時間制를 포함하여 63.3%로 한국의 약 2.5배를 보였다. 특히 常勤者와 時間制간에 有意差가 높았고 주로 가정 밖의 직장이었다. 商業에 있어서는 양국간에 유의차가 없었고 또한 상업에서 父母가 함께 취업하는 일이 적으며 父만의 경우가 많지만 母만의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形態에 있어서는 집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

表 1. 家族의 年齡.

	本人	祖父	祖母	父	母	兄弟 姉妹	叔父 叔母	家政婦
韓國	人數(人)	596	24	130	579	415	11	77
	年令(歲)	14.5	71.5	70.5	45.7	41.8		
日本	人數(人)	648	95	184	600	639	13	0
	年令(歲)	13.8	74.9	71.1	44.5	41.7		

表 2. 父母의 職業

種類	韓 國		日 本	
	父	母	父	母
	579	593	600	639
常勤	443 (76.5)	59* ^c (9.9)	450 (75.0)	166* ^c (26.0)
商業	95 (16.4)	55 (9.3)	96 (16.0)	75 (11.7)
農業	0 (0)	0 (0)	0 (0)	2 (0.3)
기타	40 (6.9)	20* ^a (3.4)	46 (7.7)	41* ^a (6.4)
시간제	0 (0)	22* ^c (3.7)	0 (0)	121* ^c (18.9)
非就業	1 (0.2)	437* ^c (73.7)	7 (1.2)	221* ^c (34.6)
無回答	0 (0)	0* ^c (0)	1 (0.2)	13* ^c (2.0)

注) 1. () 內는 %
2. *^ap<0.05 cp<0.005로 한·일간의 母에 있어서의 유의차 있음

우, 行商, 市場에서의 장사 등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집에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예가 많으므로 兩親이 경영하는 數와 일반 종사자 數가 차이가 없는 정도이다.

일본에서 1985年度 調査⁵⁾에 의하면 本 調査의 母와 同年代인 40~44歲층의 女性의 勞動力率은 67.9%로 全國적으로 높은 率을 나타냈다. 그리고 1985년도 조사⁶⁾에서 有配偶者의 취업율이 50.2%로 主婦專業者보다 높았으나 本 調査에서는 63.3%로 全國 調査보다도 높았다. 일본에서는 막내 자녀가 中學生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시간제 직업을 가지는 주부가 증가한다⁷⁾는 지적을 했는데 本 調査와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유사한 양상으로 女性勤勞者 數가 增加하고 있고 특히 纖維, 家電, 雜貨, 電子계통 분야에서 급증하며 젊은 여성의 취업율이 높고⁸⁾ 中高齡層의 기혼자의 취업율은 일본보다 낮다. 그러나 점차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張⁹⁾은 한국의 家族員의 역할의 變化에 관해서 「직장 여성의 數가 1983년도에 全國에서 38.2%로 증가했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남성이 여성과 분담하는 경향으로 되었으며 동시에 남성이 가정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여 점차적으로 가정생활에의 參與度도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유교적 생활윤리는 근대사회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는 보나 변화는 있으리라 예상된다.

3. 食事擔當의 參與狀況

한국과 일본가족의 식사담당 참여실태는 表 3-1(朝食), 表 3-2(夕食)와 같다. 식사담당이라면 넓은 의미에서는 설겅이까지 포함되나 여기서는 調理過程과 설겅이를 분리해서 조사했다. 그리고 每日 또는 거의 每日 참여한다는 경우를 「每日」, 그 외의 경우를 「때때로」로 했다. %는 各各의 人數에 대한 비율이다.

가장 높은 率로 朝食과 夕食의 조리와 설겅이에서 「每日」 참여하는 것은 韓·日間에 동시에 母였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이 더욱 높았다. 일본이 母의 有職者 數가 많았지만 시간제이거나 그 외의 직업이나 장사나 가정내 근무형태로 시간적 융통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정부를 쓰지 않는 이유로 본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가정부로서 아침, 夕食의 「조리」와 「설겅이」를 「每日」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설겅이」의 율이 높고 「조리」는 주부인 母가 주로 하면서 主導權을 가지고 있는 點은 일본과 같다.

일본에서는 祖母가 「每日」 「설겅이」로 朝食과 夕食에서 약 3분의 1 정도 참여하여 母대신 家事를 담당하는 일이 많다. 한국의 祖母의 식사담당 참여도는 일본과의 사이에는 유의차를 보였다.

대상자 본인에 있어서는 「夕食」의 「조리」 「每日」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참여도가 높고 유의

表 3. 家族의 食事擔當 參加比較 - 朝食 -.

(人)

		本人	祖父	祖母	父	母	兄弟 姉妹	叔父 叔母	家政婦	
食 事 준 비	每 日	韓 國	0* ^c (0)	0 (0)	15* ^c (11.5)	1* ^c (0.2)	532* ^a (89.7)	11 (2.7)	2 (18.2)	49* ^c (63.6)
		日 本	18* ^c (2.8)	1 (0.1)	49* ^c (26.6)	15* ^c (2.5)	600* ^a (93.9)	5 (0.9)	5 (38.5)	0* ^c (0)
	때때로	韓 國	33* ^c (5.5)	0 (0)	22 (16.9)	21 (3.6)	25 (4.2)	34 (8.2)	3 (27.3)	4 (5.2)
		日 本	86* ^c (13.3)	5 (5.3)	22 (12.0)	36 (6.0)	23 (3.6)	54 (9.5)	1 (7.7)	0 (0)
설 겅 이	每 日	韓 國	6* ^c (1.0)	0 (0)	14* ^c (10.8)	1* ^c (0.2)	504 (85.0)	14 (3.4)	4 (36.4)	60* ^c (77.9)
		日 本	30* ^c (4.6)	2 (2.1)	56* ^c (30.4)	17* ^c (2.8)	570 (89.2)	21 (3.7)	5 (38.5)	0* ^c (0)
	때때로	韓 國	49* ^c (8.2)	0 (0)	17 (13.1)	9* ^b (1.6)	17 (2.9)	57 (13.7)	2 (18.2)	7* ^a (9.1)
		日 本	114* ^c (17.6)	5 (5.3)	32 (17.4)	28* ^b (4.7)	30 (4.7)	84 (14.7)	0 (0)	0* ^a (0)

注) 1. () 內는 %
 2. 기타 무회답 제외
 3. *^ap<0.05 *^bp<0.01 *^cp<0.005로 한·일간에 유의차 있음

表 3-2. 家族의 食事擔當 參加比較 -夕食-

(人)

		本人	祖父	祖母	父	母	兄弟 姉妹	叔 叔母	家政婦
食事 준비	韓國	3 (0.5)	0 (0)	15* ^c (11.5)	2** (0.3)	521** (87.9)	11 (2.7)	1 (9.1)	51* ^c (66.2)
	日本	10 (1.5)	1 (1.1)	56* ^c (30.4)	11** (1.8)	592** (92.6)	11 (1.9)	6 (46.2)	0* ^c (0)
	韓國	81* ^c (13.6)	0 (0)	25 (19.2)	38** (6.6)	30 (5.1)	55 (13.3)	4 (36.4)	9** (11.7)
	日本	141* ^c (21.8)	6 (6.3)	29 (15.8)	76** (12.7)	32 (5.0)	76 (13.3)	1 (7.7)	0** (0)
실 것 이	韓國	19* ^c (3.2)	0 (0)	14* ^c (10.8)	1** (0.2)	485 (81.8)	25 (6.0)	4 (36.4)	59* ^c (76.6)
	日本	59* ^c (9.1)	1 (1.1)	60* ^c (32.6)	14** (2.3)	549 (85.9)	38 (6.7)	7 (53.8)	0* ^c (0)
	韓國	153* ^c (25.7)	0** (0)	19 (14.6)	24** (4.1)	31 (5.2)	98** (23.6)	3 (27.3)	8** (10.4)
	日本	240* ^c (37.0)	7** (7.4)	33 (17.9)	53** (8.8)	46 (7.2)	138** (24.2)	4 (30.8)	0** (0)

- 注) 1. () 內는 %
 2. 기타 무회답 제외
 3. *^ap<0.05 *^bp<0.01 *^cp<0.005로 한·일간에 유의차 있음

차도 보였다.

「毎日」저녁식사의 참가자가 적은 것은 대상이 중학생이므로 귀가시간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설겜이에는 다수가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毎日」아침식사에는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때때로」는 거의 참가했고 설겜이에서는 26%가 참가했다. 이러한 한·일간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가정부를 이용하는 사실과 일본에서는 母親 中에 有職者가 많은 데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제, 자매의 調理에 참가하는 한·일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에서는 본인보다 참가율이 높았고 일본은 낮았다.

本 調査를 통해서 學生인 本人의 식사에 참가가 예상외로 높았다는 사실로 특히 일본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知的行動만을 重視하여 家事參加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이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人生教育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調理의 參與에서 가장 낮은 群은 祖父와 父로서 한국에서의 祖父는 全無狀態였고 일본에서는 「毎日」의 調理와 설겜이에서 1~2人, 「때때로」에서 5~7人 정도였다. 이것은 祖父 자신이나 家族이 남자 고령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식에 의한 것으로 본다. 父의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서 有意差가 적었으나 「때때로」에서는 참가자가 많아서 祖父世代보

다는 近代의 감각을 가지고 종래의 사상이나 관습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로 알던 한국과 일본은 유교사상을 背景으로한 共通의 概念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은 일찍이 女性的의 직장진출이 증가하고 西歐風 生活의 영향을 받아서 젊은층 男性的의 家事參與意識이 높아지고 식사담당도 女性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높아졌다. 반면 여성도 男女間의 역할을 固定化하지 않고 남성을 한 사람의 가족원으로서 가사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풍조가 되었다. 한국은 張의 보고에서와 같이 젊은층 남성의 가사 참여에 대한 價値觀의 일대 轉換期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높아지리라고 추정한다. 일본의 수도권 주부의 조사에 따르면¹⁰⁾ 남편의 「調理」 「설겜이」의 참가는 「毎日」 「때때로」을 포함해서 10% 전후로 本 조사보다 높은 결과였다. 한편 「남편으로부터 도움받을만한 가사가 한 가지도 없다」는 주부의 대답을 들을 때 여성 자신이 가사에 대해서 보수적임을 엿볼 수 있었다.

表 4에서는 한·일간의 조사대상자인 本人의 식사담당 참여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男女間의 比較로 행했다. 한국은 아침 식사담당에서 남녀간에 동시에 참가자가 적었고 「夕食」 「식사담당」 「때때로」와 「설겜이」의 「매일」 「때때로」에 유의차가 보였고 남자보다 여자의 참가율이 높았다. 일본은 朝食과 夕食의 「毎日」의 「식사담

表 4. 中學生의 食事擔當參加 男女比較.

(人)

		朝 食				夕 食			
		食 事 準 비		설겅이		食 事 準 비		설겅이	
		每 日	때때로	每 日	때때로	每 日	때때로	每 日	때때로
韓 國	男 子	0 (0)	17 (5.2)	1 (0.3)	21 (6.4)	2 (0.6)	29* ^c (8.8)	4** (1.2)	42* ^c (12.8)
	女 子	0 (0)	16 (6.0)	5 (1.9)	28 (10.4)	1 (0.4)	52* ^c (19.4)	15** (5.6)	111* ^c (41.4)
日 本	男 子	8 (2.3)	27* ^c (7.8)	10** (2.9)	42* ^c (12.1)	4 (1.2)	34* ^c (9.8)	18* ^c (5.2)	80* ^c (23.1)
	女 子	10 (3.3)	59* ^c (19.6)	20** (6.6)	72* ^c (23.9)	6 (2.0)	107* ^c (35.5)	41* ^c (13.6)	160* ^c (53.2)

注) 1. ()內는 %
 2. 기타 무회답 제외
 3. *p<0.05 **p<0.01 *^cp<0.005로 한·일별 남녀간에 유의차 있음

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자의 참가가 높았다. 高橋¹¹⁾의 조사에 의하면 中學生의 家事協助의 平均시간은 남자 17分, 여자 30分으로 남자의 시간이 짧고 여자는 고학년일수록 증가했으며 本 調査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런 사실은 男女間의 食작업에 대한 先天的인 能力的 差異와 父母가 子女에 대한 性的 差別을 의식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남성의 식사담당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은 가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본은 대상자 가정에 가정부가 없었던 일, 그리고 食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일, 등으로 한·일 양국간의 社會的 構造의 차이로도 고려된다.

4. 食事禮法

식에법은 음식에 대한 습관과 교육을 말한다. 옛부터 子女에게 필요한 가정교육으로서 가르쳐 왔다¹²⁾. 東洋諸國의 禮法은 儒敎經典의 「禮記」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나 일본은 그 외의 外來文化를 吸收하면서 獨自的인 禮法을 형성했는데 반해서 한국은 유교의 敎義를 그대로 존중, 전승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도 가정저변에 뿌리깊이 남아있다고 본다.

옛부터 東洋의 禮儀之國으로 알려져서 그 국제적인 평가가 높았던 한국과 일본은 그들 자신이 禮節을 重視하는 東洋人이라는 自覺과 함께 자랑으로 삼아 왔다. 小笠原¹³⁾은 「禮는 食事에서 시작된다」고 하고 「식탁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品性을 나타낸다」고 했다.

他人과 食사를 할 때 바른 예법으로 행동하므로써 食사가 즐겁고 정겨운 식사가 될 수 있다. 가족간에도 상호 존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즐거운 분위

기를 만드는 것은 個人的으로나 社會生活에 그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아 다음의 조사결과를 考察했다.

1) 食事時 家族構成狀況

① 食사의 가족구성의 상황을 國家別, 아침, 저녁 식사별로 「每日모임」 「半정도」 「거의 모이지 못함」의 3단계로 區分한 것이 그림 1이다. 兩國이 朝食에서보다 夕食에 모이는 率이 높고 한국의 朝食과 일본의 夕食에서 거의 同率을 보였다. 한국의 夕食에서는 「每日모임」이 53.7%, 「半정도」로 40.4%의 높은 수치로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同一한 區分으로 父의 직업별 食사시 가족구성 상황을 그림 2에서 나타냈다. 父와의 同居率은 한국이 97.1%, 일본이 92.6%이며 이 同居者의 父職業의 常勤商業 기타 직업별로 조사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朝食에서는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여서 常勤에서 가장 잘 모였고 기타 직업에서는 「每日모임」이 15%로 낮고 상업은 상근과 기타 직업의 中間 정도였다. 夕食에서는 직업종류와 관계없이 良好하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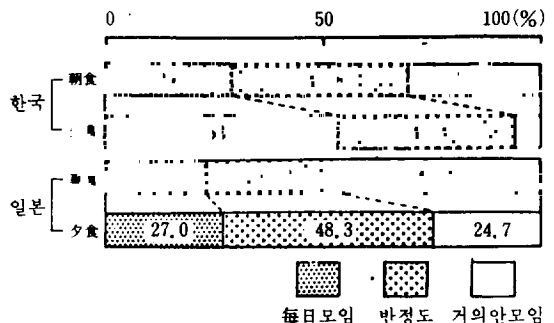


그림 1. 家族의 共同食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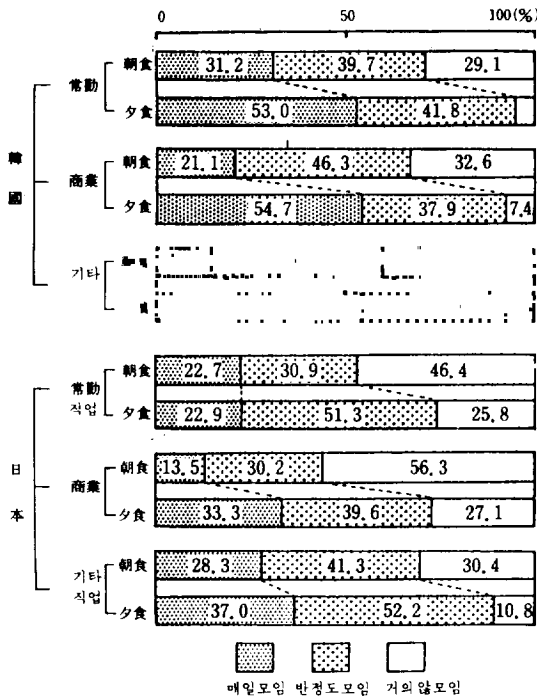


그림 2. 父의 職業別 家族의 共同食 실태.

區分의 비율도 유사했다. 夕食과 비교해서 아침에 모임 頻度가 낮은 이유는 時差出勤, 通學이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으로 본다.

일본의 常勤가정에서는 「毎日모임」은 朝食과 夕食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夕食은 기타 직업에 비하여 最低였다. 단 「半정도」가 51.3%로 常勤父의 귀가시간이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에서는 「毎日모임」은 朝食이 13.5%로 낮고 夕食은 33.3%로 높았지만 「거의 모이지 못함」에서 기타 직업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것은 開店, 閉店時間에 따라 左右되는 특징으로 본다. 기타 직업으로는 工場自營業者 그리고 해가 지면 귀가하는 土建業者가 많아서 朝食, 夕食에 가족이 모이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血緣的 親族社會라고도 한다. 가족을 食口 또는 食率이라고 부르면서 그 緣을 강하게 확인하는 의식이 높아서 한술에 밥을 먹는 共同食文化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¹⁴⁾ 나라로서 本 調査結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朝食에 모이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夕食에는 그것을 實行하고자 하는 강한 의식이 보이고 가정사정 상 곤란할 때는 날을 잡아서 모이는 등 일본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 근래에 家族共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족의 친목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직업별 勤務狀態의 문제, 進學을 위한 과외수업

등 한국과는 다른 점도 있다고 보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家族共同食에 對한 認識의 有無라고 본다. 식탁에서의 父의 말이 적고 때로는 가정재판소의 축소판이라든가¹⁵⁾ 하면서 가족이 食卓에 모여서 즐기는 機會가 감소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家族制度 및 家長制度가 보이고 있는 결점에서 온 것¹⁶⁾이라 보고 거북스런 식탁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잠재적 의식도 있고, 한편 근래에는 식탁이 子女에 대한 공부격려장으로 바뀌고 있는 실태에서도 알 수 있다.

1985년에는 厚生省이 「식탁을 가족단란의 場으로」라고 제시하여¹⁷⁾ 국민에 대한 家族共同食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共同食은 他動物과는 다른 人間만이 가지는 특징이요 共同食하는 集團의 基本單位는 가족이라고¹⁸⁾ 말하고 있다. 共同食을 가족의 구심점이 된다고 할 때 卍율이 있고 바른 식사예법을 즐기는 식탁을 演出하고 共同食의 즐거움에서 풍부한 人間性을 배양함은 물론 食文化를 전승하는 중요한 장소로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② 家族이 食事始作 前 기다리는가

가족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하는 것부터 가족共同食의 의미가 시작된다. 특히 家長이나 고령자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비록 가정 뿐만 아니라 公的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뒷사람이 시작하면서 권하는 것이 예의임을 日常食事를 통해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종래의 일본의 家長制度下에서는 가족이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家長中心의 食行動이었으나 父親不在의 食事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는 朝食時에 毎日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정에서도 「거의 기다리지 않음」이 60%로 많고 「半정도」가 80%에 달하고 있다. 夕食時에는 「毎日모임」의 가정에서는 「필히 기다림」 「때때로」 「거의 기다리지 않음」이 3분의 1씩이고 「半정도」의 가족에서는 朝食보다는 양호한 결과이나 의외로 「거의 기다리지 않음」이 약 60%의 높은 率을

表 5. 家族의 共同食頻도와 家長의 식사시작까지 기다림과의 관계, (%)

		家族의 共同食 頻度				
		朝 食		夕 食		
		모 임	반 정 도	모 임	반 정 도	
家 長 의 기 다 리 는 시 작 까 지	韓國	기다림	33.5	27.2	54.7	35.7
	日本	때때로 기다림	42.2	32.9	31.9	42.3
		거의 안기다림	24.3	39.5	13.4	21.6
家 長 의 기 다 리 는 시 작 까 지	韓國	기다림	17.9	3.4	31.4	6.4
	日本	때때로 기다림	23.2	20.7	33.7	36.1
		거의 안기다림	58.9	75.9	34.9	57.5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朝食時「毎日모임」의 가정에서 약 3분의 1이「필히 기다림」이고「거의 기다리지 않음」이 약 4분의 1이다. 그러나 夕食時에도 가족이 매일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가정의 半數 以上이「필히 기다림」으로 나타났고 당연한 결과이나「거의 기다리지 않음」이 극히 낮았다. 가족의 共同食頻度가「半정도」라도 약 3분의 1의 가정에서 필히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한다는 사실로 보아 도시를 中心으로 급격한 근대화의 變化 속에서도 고려자나 가장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관습과 가족 相互間의 配慮가 食생활面에서도 엮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일간에 同一한 경향은 가족共同食頻도가 높은 가정에서「가장이 식사 시작할 때까지 기다림」의 비율이 높고 朝食보다 夕食이 더욱 높았다.

2) 食事時 的 座席

食事時 座席은「정해져 있다」「때때로 바뀐다」「정해져 있지 않다」의 3단계로 區分하였고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에「정해져 있다」가 半數 以上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본은 약 60%의 높은 결과였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양국간에 3區分 中에서도 가장 낮았고 일본이 더 낮았다. 식사시의 좌석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본다. 한국은 유교사상의 原則인「男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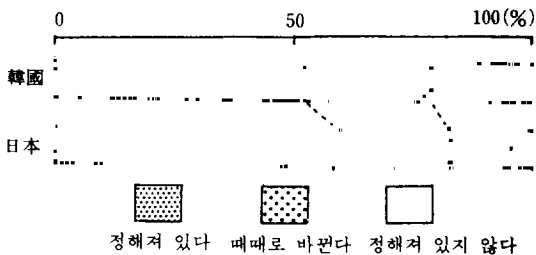


그림 3. 食事時 座席.

七歲不同席」에 의해 七歲 以上の 男女는 식사시에도 다른 방을 사용했으나 時代的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가고 있는¹⁹⁾ 상태이다. 都市에서는 住居의 近代化로 生活樣式이 變하면서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서 祖父母로부터 같이 식사하는 民主化시대의 食생활로 되었다.

일본에서는 昭和의 前半頃부터는(1920年代 이후) 대부분의 경우에 뒷사람이 上席에 앉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근대에는 이 관례가 변하여 각자의 형편에 따라 앉는 예가 정착해가고 있다. 여하간 毎日 식사하는 장소라면 각자가 정해진 자리가 있어서 安定된 상태에서 식사를 함이 바람직하다.

3) 食事 前後의 인사

식사 전후의 인사는「꼭 한다」「때때로 한다」「거의 하지 않는다」의 3단계로 區分하여 그림 4에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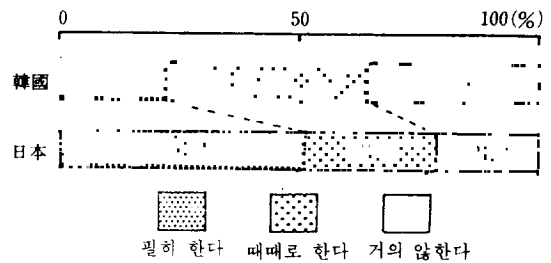


그림 4. 食事 前後의 인사.

「꼭한다」는 한국이 22.2%, 일본은 51.1%이고「거의 하지 않는다」에서는 한국은 35.9%, 일본은 21.1%로 식사 전후의 인사는 일본이 잘 행해지고 있음은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식사 전후에「いただきます」(잘 먹겠습니다)「ごちそうさまでした」(잘 먹었습니다) 등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서 인사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가정은 물론 학교교육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관계로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영아기부터 日常的으로 교육을 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20%가「거의 하지 않는다」한 것은 문제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본래 神佛에 대한 감사하는 뜻으로 식사 전후에 필히 하는 것은 일본식문화 상 특징이요 한국과 다른 점이다.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가장이나 가족이 전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나 특별한 식사 전의 인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잘 먹겠습니다」라든지 모두를 의식할 때는「잘 먹읍시다」또는「줍시다」등으로 대신하고 식사가 끝났을 때는「잘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난한 인사가 된다.

다른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에 53.7%가「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높은 비율로 한다고 했다. 가정에서「때때로 한다」「거의 하지 않는다」의 대상자들도 가정 외의 장소에서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食事時 的 상황

식사시의 상황은「조용히」「대화를 하면서」「텔레비전을 보면서」「혼자서」의 4종류로 分類하여 朝食, 夕食에서 擇一方式으로 답을 받았는데 그림 5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朝食에서「조용히」「대화를 하면서」「혼자서」가 各各 30% 内外씩이며「텔레비전을 보면서」는 9.1%로 적었다. 夕食에서는「대화를 하면서」가 58.6%로 증가하고「텔레비전을 보면서」가 朝食의 3배나 된다.

일본은 朝食, 夕食에서 동시에「텔레비전을 보면서」가 많았고 夕食에서「대화를 하면서」가 많았으나「텔레비전을 보면서」와 합치면 94.4%가 되어「조용히」「혼자서」가 극히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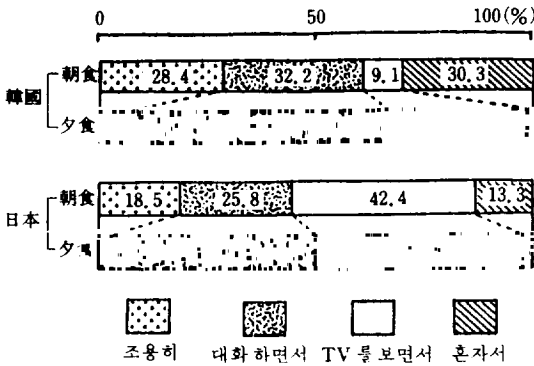


그림 5. 食事時 的狀態.

저녁의 식탁이란 가족이 모두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다. 본 조사에서는 실제로 한·일간 朝食보다 夕食時 높았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예전에는 식탁에서는 가장의 훈계적 말 외에는 조용히 그리고 엄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예법으로 통용되어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하는 장소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도 그런 경향이 있으나 일본에서는 특히 근래에 와서 젊은 父母들의 放任狀態로 가정교육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식사예법이 문란해지고 孤食化, 個食化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예가 많아졌다. 한편으로는 식사의 간편화 그리고 外食志向 등으로 일본의 食文化가 크게 變化하고 있음을 지적한바도 있다.²¹⁾ 「혼자서」 즉 個人食은 朝食에서 13.3%이나 「조용히」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個人食의 범위에 속하는 數가 크리라고 본다.

母의 취업과 個人食에 관한 高橋²²⁾의 調査에 따르면 朝食에서 有職者 家庭에서는 16~17%, 家事專業家庭에서는 9%로 차이가 컸으나 夕食에서는 母의 취업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有職者 가정쪽이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回數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母의 취업율이 높아지면서 가족간의 대화의 場이 적어지는 것으로 우려했으나 母의 이에 대한 강한 의식과 가족의 협력에 의해서 良好한 상황을 이룩해 나가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다음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하는 人數는 朝食, 夕食에서 과반수에 달해서 극히 높은 것으로 보고 혹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다해도 텔레비전에 열중해 있을 경우, 실제로는 個人食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본다. 이런 시점에서 볼때 父母는 가족共同食의 意義를 인식해서 無統制 상태의 自己中心의 食行動을 改善하고자 하는 努力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朝食에서 가족과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율이 낮고 조용히 식사하는 실태도 일본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夕食時에는 半數 以上の 가정에서 모여

서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밥상에 둘러앉아 그릇소리가 들리면서 국을 마시고, 음식을 씹는 소리를 통해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²³⁾ 것이 정겨운 풍경이라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日本의 전통적인 식탁은 「靜」이라 표현될 수 있고 한국은 「靜」과 同時に 식사시에 나는 낮은 「音」을 통한 단란과 맛이 표현되는 食文化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텔레비전의 보급에 따라 식탁에 텔레비전을 놓는 가정이 증가하고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近代化 현상이라고 보나 그럴수록 앞으로의 부모의 바른 사고와 교육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비중을 두어야 되리라고 본다.

IV. 結 論

本 研究는 그 始發이 「韓國의 食文化가 日本에 미친 影響」이라는 큰 테마를 주축으로 비롯하여 저자 등은 한국으로부터의 일본 食文化에 영향을 현재의 식탁에서 검토해 보고자 시도했으며 I報에서 食器具類의 種類와 그 使用에 관하여 논했으나 本 報인 II報인에서는 食事 담당자의 참여와 食事禮法 등의 思想的 慣習的인 背景에 따른 食行動을 調査하고 고찰했다.

한국은 李朝時代에 성했던 유교적사상이 食생활속에도 깊이 침투해 있었음이 분명하나 현대에 이르러 남자의 식사작업에 참가 등이 젊은 世代의 의식개혁에 따라 生活方式와 價値觀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每日 가족이 共同會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족이 모두 모이고 가장이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하는 것은 극히 이상적이고도 자연스런 발로이나, 한편 유교적 사상에 따른 생활속의 관습화된 근본임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일본문화는 中國大陸으로부터 직접 혹은 한반도를 경유하여 流入되었으며 오랫동안 時代를 거치면서 獨自의 文化를 形成한 渡來文化임은 歷史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에 다시 神佛信仰이 加味된 유교의 家族主義的 觀습이 日本國民 生活속에 침투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民主化, 近代化社會로 변혁되면서 男子의 식사작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家族共同食頻度가 감소하면서 子女의 個人食化 傾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한편 식탁에서의 禮法이나 食文化傳承의 場으로서의 食卓의 또다른 중요한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엄격한 食卓도 아닌 안일한 放任狀態도 아닌 단란한 共同食의 場으로 선정되어 父母自身이 家族共同食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것을 통해서 子女의 훌륭한 人格을 育成하는데 좋은 機會로 삼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 보고 본다.

本 調査實施에 따라 양국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의 共通性和 各各의 社會的 構造와 背景의 變遷에 따른 相違點도 나타내고 있지만 한·일간에 시간적 차이의 차이가 존재할 뿐 西歐文化의 影響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否定할 수 없다. 近代化에 밀려서 獨自的인 精神의 상실이 아닌 各者의 固有의 우수한 食文化의 傳承에도 소홀함이 없이 東아시아民族으로서의 食文化의 特質을 保存하고 愛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本 研究는 1987年度부터 日本文部省科學研究「海外學術研究—大學間協力研究」(代表者: 日本郡山女子大學 金田尙志教授)部門의 研究費로 수행되었다. 本 研究 進行에 있어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조사에 직접 협조해 주신 서울시 彦北中學校 金德順校長, 東京都 教育청 久恒惠美子主査外에 서울시內 主부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자료를 제공해준 日本 味の素 주식회사, 東北支店廣報室 여러분께도 심심한 射意를 포함합니다.

참고문헌

1. 金天浩, 芳賀文子: 韓國과 日本人의 食行動에 關한 調査研究(I報) —食器具類 使用에 關하여— 韓國食文化學會誌 4, 1(1989)
2. 武内義雄: 儒敎의 精神, 岩波新書, p.133(1982)
3. 諸橋徹次: 儒敎講話, 目黒書店, p.1(1941)
4. 山本剛士編: 韓國入門, 三省堂, p.57(1987)
5. 總務廳統計局鹽修: 日本의 統計, p.27(1986)
6. 總務廳統計局鹽修: 日本長期統計總覽, p.408(1987)
7. 15. 山路健: 暗の食卓 明の食卓, 日本經濟評論社, p.246, 248(1987)
8. 日本의 國力國際比較大事典, 講談社, p.365(1984)
9. 張明郁: 2000年代를 向한 大學家政學教育, 日本家政學會誌 36(1985)
10. 食生活總合調査: 食生活의 實態と スタイル, 日本情報サービス株式會社, p.95(1981)
- 11, 22. 高橋道子: 母親의 就業에 對する 父親と 子どもの 意識と 生活의 實態, 母親의 就業と 家庭生活의 變動, 弘文堂, p.58, 47(1987)
12. 藤井美紗子: 近代의 食事作法의 しつけについて, 日本食生活研究 5(1984)
13. 小笠原清信: 今日의 マナー, 學生社, p.76(1980)
- 14, 23. 李圭泰: 韓國人의 心의 構造, 角川書店, p.94, 98(1986)
16. 食料·農業政策研究センター編: 私達の 望ましい 食生活, 日本農林統計協會, p.58(1983)
17. 厚生省保健醫療局健康増進營養課編: 健康づくりのための食生活指針, 第一出版, p.5(1985)
18. 石毛直道: 食事의 文明論, 中央公論社 p.54(1987)
19. 伊藤亞人: 風土と生活文化, もつと知りたい韓國, 弘文堂, p.55(1988)
20. 黃慧性, 石毛直道: 韓國의 食, 平凡社, p.149(1988)
21. 茂木專枝編: 最新營養指導論, 學建書院, p.35(1987)